

중등 가정교과에서의 실천적 문제 중심 죽음준비교육 방안

김삿별* · 채정현**1)

한국교원대 박사수로* · 한국교원대**

Death preparation education plan based on practical problem in middle and high school Home Economics curriculum

Kim, Saet-Byeol* · Chae, Jung-Hyun**1)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Death preparation education is not only preparing for future death but also for happier and meaningful life. Death is a persistent problem faced by all human beings and can be found in connection with the Home Economics(HE) curriculum in that it is a contextual practical problem of individuals and their socie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velop the practical problem-based death preparation education teaching-learning plans that can be applied to middle and high school HE subject.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HE death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was developed. The program name is 'Death Preparation Education for the Happy Life of Me and Family'. Also, 12 practical problems and the 4 teaching-learning plans were developed.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educational materials to allow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o take death naturally in their lives and to practice meaningful everyday life for worthy death during the HE classes. As a follow-up study, we propose a study to examine the needs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in HE curriculum an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in HE class.

Key words: 가정과 교육(Home Economics Education), 죽음준비교육(Death Preparation Education), 죽음교육(Death Education), 실천적 문제(Practical Problem), 교수·학습 과정안(Teaching-learning plans)

1) 교신저자: Chae, Jung-Hyun, 250 Taeseongtabyeon-ro Gangnae-myeon Heungdeok-gu Cheongju-si Chungbuk,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8173, The Republic of Korea

Tel: 043-230-3758, Fax: 043-231-4087, E-mail: jchae@knue.ac.kr

I. 서론

최근 우리 사회는 건강한 삶을 위한 웰빙(well-being)을 넘어, 좋은 죽음, 즉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Min & Cho, 2017). 웰다잉은 단순히 미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보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것으로 잘 사는 삶, 즉 웰라이프(well-life)를 의미한다. 현 세대는 평균수명의 연장, 합법적인 존엄사 등 이전 세대보다 자신과 가족의 죽음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죽음준비교육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며 웰라이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Kim Ijin, 2018.08.31.).

죽음준비교육은 죽음의 원인, 조건, 이론 등을 연구하는 죽음학(Thanatology) 또는 생과 사에 관한 학술적 연구인 사생학(死生學)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죽음과 그 과정, 사별과 관련된 모든 측면의 교육을 포함하는 것으로, 죽음에 관한 지식, 태도, 기술이 학습되는 과정을 의미한다(Warren, 1989). 다시 말해서 죽음교육은 죽음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관련된 감정과 반응을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죽음의 의미를 알게 하며, 삶에 대한 새로운 전망과 다양한 가치 및 긍정적인 태도를 부여하는 삶의 교육(Deeken, 2014)이다. 죽음은 인간발달의 어느 단계에서나 겪을 수 있는 일이므로 그 실재를 이해하고 자신의 인생에 통합하여 성찰함으로써 삶에 대한 새로운 전망과 좋은 인생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죽음준비교육은 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기에 누구나 받아야 하지만 특히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Chae & Kim, 2006). 그 이유는 현대의 청소년들은 물질 중심의 문화, 경쟁 위주의 분위기 속에서 과거에 비해 소외되고 낙담하는 경험 늘어나기에 자살 등 죽음의 문제와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려 동·식물, 텔레비전, 영화, 게임, 신문, 만화,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무방비하게 죽음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 죽음을 자신의 인생에 통합하여 삶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교육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한 죽음과 삶에 대해 성찰하는 죽음준비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의료과학의 발달과 핵가족화로 과거 대가족사회에서처럼 조부모나 일가친척의 자연스런 죽음을 경험하여 죽음과 삶에

대해서 성찰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기에, 현대의 청소년들에게 죽음준비교육은 필수적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죽음준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5월, 죽음 알림 주간을 통해 죽음에 관한 논의를 하고 죽음에 대해 회피적이었던 사회 분위기를 바꾸려 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 시민들은 장례계획, 유언장, 장기 기증서 등을 작성하여, 자신이 원하는 죽음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갖는다 (Kim Ijin, 2018. 08. 31.). 미국의 경우 매년 죽음교육학회가 열리고 「죽음 교육」, 「오메가」, 「죽음 연구」 등 죽음 전문 잡지가 발간되고 있으며, 대학생과 사회인 대상 강좌 뿐 아니라 초·중등학교에서도 죽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시민을 위한 죽음교육 강좌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세미나」를 1982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L. Lee, 2016).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보다는 늦었지만,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2005년 결성된 한국죽음학회는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구호 아래 ‘잘 죽는 법(웰다잉)’을 화두로 제시하고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 「죽음맞이」 등의 책을 펴내고 있다. 또한 ‘웰빙과 웰다잉’, ‘영화를 통한 죽음 이해’, ‘근사체험(죽음의 문턱에 다녀온 체험)’ 등 강의를 통해 다양한 주제로 죽음준비교육을 하고 있다 (Ham Gyuwon, 2015. 10. 23.). 그러나 여전히 한국에서는 죽음을 피하려 하는 문화적 영향으로 부모나 교사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배척적이며, 이러한 영향으로 학생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들이 죽음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갖게 되어 여러 가지 문제, 즉 게임에 중독된 학생이 게임에 삶을 소진하는 문제(Wi Aram, 2018.06.22.), 학업스트레스나 진로 고민 등으로 인한 자살하는 사건(Kim Hyeongsik, 2018.04.16.) 등이 발생하고 있다.

가정교과는 청소년이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게 하는 실천교과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삶의 항구적 문제를 주제로 삼는다. 현재 시행 중인 2015 개정 가정교과(「기술·가정」 교과과정의 가정생활 분야) 교육과정에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생활 속의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이루게 하고자 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이때의 행복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 사회와 지구환경까지 확장하여 모두 다 잘 사

는 행복을 의미하기에 고통당하거나 소외되는 자를 배려하는 도덕적인 행동과 비판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가정교과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실천을 위한 추론 즉, 행동하기 전의 자기반성과 성찰 즉 이성적 사고를 강조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가정교과는 죽음준비교육에 적합한 교과라고 볼 수 있다. 가정교과를 통한 죽음준비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은 유한한 삶을 깨닫고, 전 지구적 차원과 전 생애의 관점에서 자신과 가족, 타인, 미래세대 모두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더불어 가정교과는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 위한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생명과 죽음에 대한 비판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를 길러줄 수 있다. 또한 개인, 가족,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룸으로써 자신과 타인, 사회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가족 뿐 아니라 노인과 소외된 이웃의 고통과 이별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게 하며, 모두의 행복을 위한 사회체계의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현재 한국의 죽음준비교육은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Han & Park, 2009), 종교나 작품을 통한 간접적 교육, 가치관 교육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는 가정교과에서의 죽음준비교육 도입이 시급하다. 기존 가정교과에서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연구는 Chae와 Kim(2006)의 대학생 대상의 죽음 불안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전무하며, 가정교과 차원에서 죽음준비교육 방안조차도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가정교과에서 청소년 대상 죽음준비교육을 위해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고 가정교과에서 실행할 수 있는 죽음준비교육을 위한 실천적 문제를 제시하고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과정을 개발하여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가 가정교과에서의 죽음준비교육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현장의 가정과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선정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교 가정교과에서의 죽음준비교육을 위한 실

천적 문제를 개발한다.

둘째, 개발된 실천적 문제 중 일부를 선정하여 중·고등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중·고등학생용 가정교과의 죽음준비교육 교수·학습 과정을 개발하고 죽음준비교육 전문가, 가정교육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최종 완성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죽음준비교육의 정의

죽음은 그리스어로 타나토스(thanatos)라 하며, 따라서 죽음을 연구하는 분야를 타나톨로지(thanatology)라 한다. 타나톨로지를 사학(死學)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사생학(死生學)이라고도 한다. 사생학이 학문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파이프(Herman Feifel)의 『죽음의 의미(The Meaning of Death, 1959)』가 출간되면서부터다. 그 후 죽음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활발히 일어났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죽음을 가르치는 죽음준비교육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Lee & Kang, 2016), Alfons Deeken은 사생학의 구체적인 실천 단계로 죽음에 대한 준비 교육을 제안하였다(Deeken, 1991). 국내에서의 죽음준비교육은 연구자에 따라 죽음에 대한 준비 교육, 죽음준비교육, 죽음교육, 웰다잉(Well-dying) 교육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D. Kim, 2010).

죽음준비교육은 죽음을 주제로 여러 학문분야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다학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죽음학과 교육이 접목되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이것은 죽음준비교육의 개념을 정의할 때도 그대로 반영된다(L. Lee, 2016). L. Lee(2016)는 죽음준비교육은 자신의 삶 속의 죽음의 의미를 탐구하여 자신의 한계 자각을 통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고, 자신, 가족, 타인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돕는 교육이라 하였다. Warren(1989)은 죽음, 사별, 죽음의 과정에 관한 모든 측면과 관련된 지식, 태도, 기술이 학습되는 과정이라 하였다.

Yang(2017)은 죽음교육이란 “죽음, 임종과정, 사별, 비탄, 자살 예방, 생명존중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죽음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주변사람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활동”(p. 9)으로 보았다. Yoon(2009)은 죽음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깨달아 자신, 이웃, 환경 그리고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는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는 교육으로 보았다. 이렇듯 학자들 간의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자신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죽음과 관련된 문제의 탐구를 통해 자신과 주변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자신과 공동체의 삶의 가치를 찾아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Corr, Nabe와 Corr(2013)은 죽음준비교육이 교육 프로그램화되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자 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와 관련하여 죽음준비교육의 개념을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가치적 차원의 용어로 구분하였다(Corr et al., 2013). 첫째, 인지적 차원은 죽음준비교육은 죽음과 관련된 경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죽음과 비탄, 사별의 다양한 양상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둘째, 정의적 차원은 죽음, 죽어가는 과정, 사별과 관련된 감정, 정서를 다루려는 교육적 시도로, 상실과 사별경험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감정들, 비탄반응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이다. 셋째, 행동적 차원은 사람들이 죽음에 관한 다양한 상황에서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도움이 되는지를 탐색하려는 시도이다. 넷째, 가치적 차원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확인하고 분명히 하려는 교육적 시도이다(L. Lee, 2016).

Leviton(1977)은 죽음준비교육의 성격을 예방적, 개입적, 치유적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예방적 차원은 개인과 사회로 하여금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사건과 결과에 대해 준비시킬 수 있다. 인간은 언젠가 죽고, 타인의 죽음을 겪기 때문에 비탄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죽음준비교육은 죽음과 비탄을 미리 생각하고 학습하게 해 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죽음으로 인해 병적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개입적 측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직면하도록 하여,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어떻게 위기 개입자로서 활동할 수 있을지를 배우도록 한

다. 셋째, 치유적 차원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과 관련된 위기와 경험으로부터 배우도록 도울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나서 그 사람의 죽음의 의미와 그것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생각하게 하는 등 죽음이 발생한 이후의 반응들에 개입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Leviton, 1977).

또한, 죽음준비교육은 대상에 따라 목적은 상이한데, 유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들이 죽음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죽음의 특징을 설명하여, 죽음에 대한 지나친 공포나 환상적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한다(Byun & Lee, 2009). 그러나 청소년들은 시험 실패, 친구와의 이별, 진로 고민, 부모와의 갈등 등 일상생활에서 '작은 죽음'의 경험을 통해 자살을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Choi, 1995). 또한 이 시기는 자아실현을 위해 준비하는 시기로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제한성을 깨달아 자신의 삶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음준비교육은 자아실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Lee, 2017).

이상의 가정교과에서는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고찰을 통해 죽음준비교육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가치적 측면의 통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죽음의 사건에 대비하도록 하여 죽음을 통한 비탄을 극복하도록 하는 예방적 역할, 자살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개입자 역할, 그리고 죽음 사건이 삶의 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삶의 통찰로 승화되도록 하는 치유적 차원의 역할 등 균형있는 시각을 가지고 개발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2. 청소년을 위한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죽음준비교육의 의미

청소년기는 인생 시기 중 가장 변화가 풍부한 시기로 다양한 갈등 속에서 자아의식이 확립되기도 하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으며,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청소년 시기부터 죽음에 관한 적절한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인간존재의 의미, 삶의 유한성,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삶에 대한 관점을 확립하여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것이다. 또한 나

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게 되어 삶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비행행위를 최소화 할 것이다(Moon, 2007).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던 죽음준비교육이 그 대상을 청소년 까지 확대해야 하고 다양한 죽음준비교육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Lee와 Kang(2016)는 죽음준비교육은 개인적 측면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해와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죽음준비교육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Yang Seonhui(2018.02.04.)는 가족·친구와 죽음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문화와 호스피스 제도의 정착이 한국사회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교육과 문화운동, 의료시스템의 변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죽음은 미지의 세계이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성찰은 훈련을 통해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공부하면 죽음의 질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Kim(2006)은 청소년들은 죽음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과 명확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생활에 대한 불만족이나 진로에 대한 문제 등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이 높아져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죽음준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죽음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시기는 중학교 이후(35.4%)와 초등학교 4-6학년 시기(34.1%)로 죽음을 처음으로 생각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시기라는 것은 죽음준비교육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시기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Jung, Lee, Lee, Baek & Lee, 2013). 또한 이들이 무엇을 계기로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는지 죽음을 인식하게 된 계기를 조사한 결과, TV나 영화, 소설에서 죽음을 보거나(28%),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때(22.6%),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보고(15.3%),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14.6%)였다. 이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이 죽음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는 주로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죽음을 통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중매체에서의 살인, 자살 등 폭력적인 죽음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거나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등 비현실적인 죽음이 현실적인 죽음으로 각인됨으로써, 그릇된 죽음관과 생명관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주

의가 필요하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도 그릇된 죽음관이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22.6%의 학생이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죽음을 생각한다고 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Jung et al., 2013).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망 원인 통계’ 자료에서 인구 10만명 당 자살로 사망한 10대의 수가 2015년 4.2명에서 2016년 4.9명으로 늘어나(Kim Sora, 2017.09.26) 학교정규교육과정에서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약 41.4%가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죽음준비교육이 삶을 바르게 사는데 도움이 되며,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죽음 이후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Ji, 2007). 또한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한 후 성별과 학력에 차이 없이 동일하게 영적 안녕감과 삶의 의미가 유의미하게 높아졌고, 자살생각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Park, 2015). 죽음준비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삶에 성찰해 삶을 바르게 살고, 영적 안녕감을 느끼게 해 최근 높아진 청소년의 자살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무엇보다 청소년 스스로가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죽음준비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대부분은 교회(36.4%), 성당(34.1%), 학교(15.9%) 순으로 대부분의 죽음준비교육은 종교기관에서 이루어지기에(Jung et al., 2013) 종교적 관점에 편향됨을 알 수 있고 정규교육과정에서 실시되지 않아 모든 교육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삶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학생들의 행복하고 자주적인 삶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은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모든 청소년들에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삶을 교육내용으로 다루고, 전생애적 관점에서 실천적 문제를 다루는 가정교과에서의 죽음준비교육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3.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죽음 준비교육 선행연구 고찰

청소년들과 사회의 요구로, 최근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하다는 연구(Kim & Byun, 2014; Moon, 2007; Park, 2011; Lee & Kang, 2016; L. Lee, 2016; Ji, 2008)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현재 생명존중

교육과 자살예방교육 등 생명만 있거나 죽음만 있는 반쪽짜리 교육이 일회성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죽음준비교육의 목표는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으로 ‘죽음’을 예방하기 위한 생명존중교육, 자살예방교육의 일회성의 교육으로는 삶에 대한 통찰을 이끌어내기는 힘들다. 이러한 문제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교과를 통한 죽음준비교육의 연구를 시도하고 있으나, 국어 교과(Kang 2016; D. Kim, 2010; J. Kim, 2010; Choi, 2008), 도덕 교과(Kim, 2009; Kim 2011; Jung, Lee, Lee & Baek, 2015), 미술 교과(Lee, 2006)에서 미비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죽음준비교육은 죽음준비교육의 의미를 고찰하거나(Kim, 2002; Jung, 2006), 죽음준비교육을 위한 기초연구(Kweon, 2017; Lee, 2004; Jung et al., 2013; Ji, 2007), 죽음준비교육 현황에 관한 연구(L. Lee, 2016),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Kang, 2016; D. Kim, 2010; Kim, 2009; J. Kim, 2010; Park, 2016; Yang, 2017; Lee, 2006; Jung, Lee, Lee & Baek, 2014; Choi, 2008;

Choi, 2016) 등이 있지만 특정 교과나 종교에서의 교육에 한정되어 있다.

죽음은 인생의 큰 난관이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삶의 소중함을 느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자신과 이웃의 삶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다(Park, 2016). 이러한 죽음준비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제시하는 방법은 크게 부가 모형(additive approach)과 변형 모형(transformation approach)이 있는데(Banks, 1998/2008), 부가 모형은 기존 교육과정의 구조, 목적, 특성들이 크게 손상됨이 없이 유지된 상태에서 개념, 주제, 활동, 관점 등을 교육과정에 추가하는 접근법으로 각 교과의 교과서의 기본 구조는 변형하지 않고 부록이나 심화 활동 등을 통해서 죽음을 제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형모형은 교과의 목표, 특성, 내용 등을 죽음의 관점 등과 조화될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을 변형시키는 접근법이다(Lee, 2006). 교과에서 개발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죽음준비교육의 선행연구들은 부가모형으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Table 1. Death preparation education developed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by subject(Additional model)

subject	Researcher	Student	Contents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Korean language subject	Kim, J. H. (2010)	middle school	As a way of internalizing the educational value of death for novel works, he proposed teacher announcements and answers, writing letters from the character's point of view, role play, discussion, and discussion as a guide.
Korean language subject	Kim, D. H. (2010)	middle school	Five suggestions for use in middle school Korean language classes (Death recognition as life course, Raising awareness of life, Overcoming sense of loss caused by bereavement experience, Moral and ethical understanding of death, Social and cultural understanding of death).
Korean language subject	Kang, S. B. (2016)	high school	The deaths that appeared in the seven classic novels were divided into 'The device of the passage ceremony', 'resistance to social myths and regulations', and 'realization of people's desire through punishment of the wicked'.
Korean language subject	Choi, M. K.. (2008)	middle·high school	In order to internalize the idea, we wanted to bring the acceptance of emotional novel to the learner. Through the steps such as questions and answers, role play, discussion and discussion, and self-understanding through writing, I think that it is possible to add depth of awareness to future life.
moral subject	Kim, S. K. (2009)	middle·high school	Specific plans for death education were presented in terms of content and method of middle and high school moral subject. The content of death education in the moral department is awareness of death concepts, education to heal sorrow, education to acquire death value, and education to prevent suicide.
moral subject	Jung, J. G.. 외 (2009)	middle·high school	A class model was presented under the themes of 'The preciousness and morality of life' and 'Death and Ethics'. 1) Model 1 'Reflection on Life and Death' 2) Model 2 'The Ethical Attitude toward Death'
art subject	Lee, H. S. (2006)	high school	High school art textbooks "Art Culture" and "Art Creation" analyzed and interpreted death from various perspectives (Buddhist, Christianity, ideology, philosophy, and existentialism).

죽음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 1>은 부가 모형으로 개발된 교과별 죽음준비교육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1>에서 보듯이, 국어 교과와 경우 중등 교과서에 제시된 소설 등의 작품에 제시된 죽음을 학년별·장르별·주제별, 인지적·정의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죽음의 교육적 가치를 도출한 뒤,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내면화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안(등장인물 입장에서 편지쓰기, 역할놀이, 토의·토론)을 제시하였다. 도덕 교과와 경우, Kim(2009)은 죽음개념 인지교육, 슬픔 치유 교육, 죽음가치 습득 교육, 자살예방교육으로 제시하였고, Jung 외(2015)는 일본 청소년 죽음교육모형을 통해 한국 청소년들을 위한 죽음준비교육 모형을 제시하였지만, 죽음준비교육 모형이라기 보다는 간단한 교수·학습 과정안으로 도덕과에서 추구해야 하는 죽음준비교육의 숙고없이 수업시간에 적용가능한 교수·학습 과정안만 제시하여 아쉬움이 있다. Lee(2006)는 「미술문화」, 「미술창작」교과서에서 제시된 죽음을 다양한 관점(기독교, 불교, 관념론, 실존주의 등)에서 분석·해석을 통해 체험과 표현, 감상을 하나의 단원으로 구성하거나, 표현 수업과 감상 수업을 통합하는 방법을 통해 죽음준비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중등 교과를 통한 죽음준비교육은 Corr 외(2013)가 제시한 죽음준비교육의 차원 중 인지적, 정의적 차원, 가치적 차원에 한정되어 있으며, 도덕 교과와 경우 죽음을 통한 삶의

가치보다, 죽음 자체에 관한 가치관 교육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술교과는 작품을 통한 죽음에 관한 다양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Leviton(1977)의 죽음준비교육의 성격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국어 교과, 도덕 교과 모두 예방적, 개입적, 치유적 차원의 균형있는 관점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나, 주로 예방적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개인의 죽음에 관한 슬픔을 극복하는 개인적 치유라는 한계와 Corr 외(2013)의 행동적 측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2>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교과 영역에서 개발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다.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죽음’만을 대상으로 하거나(Deeken, 1991) 기독교적 종교철학을 기반으로 한 죽음준비교육(Park, 2016)으로 학교현장에 적용하기에 부족함이 있었다. 그러나 <Table 2>에서 보듯이, Park(2016)은 교육개발모형인 ADDIE모형을 적용하여 갈등유발·탐색·통찰·해방·검증·설명단계로 체계적으로 죽음준비교육 모형을 개발하였다. Yang(2017)은 자유학기제에 활용할 수 있는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 죽음과 삶에 대한 이해, 나의 죽음, 상실에 의한 슬픔 다루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호스피스 운동, 적극적인 삶의 운전자로서의 나’ 라는 주제로 16차시의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고, 죽음준비교육의 지속성을 위해 학교 정규교과

Table 2. Death preparation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Researcher	Contents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Characteristics
Deeken (1991)	Pre-examination and death concepts, language of death, death process, necessity of death and children, death and euthanasia, objectification of death, death and afterlife, death and grief, death and funeral, suicide and suicide prevention.	The focus is on awareness of death, but lack of concept for well-dying.
Park, H. J. (2016)	My precious life (causing conflict through death awareness) : conflict-causing stage General death understanding (human limit situation recognition) : steps in pause for navigation Understanding psychological death : steps of insight through imagination Understanding religious death : stages of conflict and liberation My precious life : stages of verification and explanation	Development of youth death education program through the ADDIE model, Christian education counseling death education
Yang, I. G. (2017)	Death preparation education, death and life, understanding of death and life, making the process of death a video work, interviewing and impression, writing a will, experience of entering a coffin, making my obituary, planning my funeral, handling of grief due to loss, preventing suicide, respecting life, what is hospice?, finding meaning and goals of life, establishing your own philosophy about life and death, death tree and tree of life	It is possible to utilize it in the free semester system, and the curriculum is specifically structured so that it can be opened and operated as a basic-advanced course.

교육과정 내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에서 운영하기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죽음준비교육을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가치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개발하였음에 의의가 있으나, 자신의 부고장이나 장례식을 계획하기 등 죽음에 관한 개인적 행동 차원에 그친 한계가 있으며, 죽음에 관한 예방적 차원에 집중됨을 알 수 있었다.

4. 가정 교과와 죽음준비교육

중·고등학교 가정 교과는 개인과 가족의 행복은 물론 타인과 사회의 행복을 추구하는 교과이다. 가정교과 내용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항구적 문제이며, 배경지식과 맥락을 중시하는 실천적 문제를 다룬다. 이는 비판적 사고와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정답이 없는 문제이다. 가치 있는 죽음(좋은 죽음) 즉 웰다잉에 대한 문제는 개인이 속한 사회와 가족마다 혹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맥락적이며 실천적 문제이다. 죽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직면하는 항구적 문제이며, 맥락적인 실천적 문제라는 점에서 가정교과와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죽음에 대한 관점은 인간의 삶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에 대한 관점(Ku, 2012)이기에 인간의 삶을 다루는 가정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가정교과에서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은 자신과 관련된 죽음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숙고하고, 나, 타인,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올바른 대안을 선택하여 행동을 함으로써 죽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가정교과는 타 교과에서 다루지 않는 행동적 차원의 죽음준비교육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죽음에 대한 가치뿐만 아니라 삶을 다루는 가정 교과의 특성상 나와 가족의 좋은 죽음(웰다잉)을 준비하는 삶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하고 배려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수업을 실행할 수 있다. 즉, 가정 교과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실천적 문제를 맥락적으로 탐구하고 행동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죽음준비교육에 적합한 교과로, Corr 외(2013)가 제시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가치적 차원의 통합적 죽음준비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타 교과의 죽음준비교육이 죽음의 위기에 어떻게 개입

하여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입적 성격이 미비하고, 죽음의 위기와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치유의 효과가 개인적 측면에서 머물렀다면 가정 교과는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관계의 형성과 관계의 회복을 추구하므로 죽음준비교육의 개입적 차원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건강한 가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배려와 돌봄을 배우도록 하며, 이를 친구, 이웃 공동체, 자원과 환경으로까지 확대하여 건강하게 관계 맺는 능력과 태도를 함양함으로써(Ministry of Education, 2015) 개인적 차원을 넘어 가족과 사회로 죽음준비교육의 치유적 차원이 확대 될 수 있다. 즉 가정교과에서는 Leviton(1977) 예방적, 개입적, 치유적 차원이 통합되는 죽음준비교육이 가능하다.

한편,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의 발달, 관계, 생활 문화, 안전, 관리, 생애 설계의 여섯 가지의 핵심개념을 기준으로 살펴본 가정교과에서의 죽음준비교육의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과 ‘관계’의 핵심 개념 관점에서 살펴보면, 죽음은 인간발달의 마지막 단계로(Lee & Kang, 2016), 청소년 발달과 인간 발달을 다루는 가정교과에서 중요한 내용소재이다. 청소년의 중요한 과업인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탄생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탄생은 이미 과거 사건이므로 자아 인식은 죽음의 문제로 귀결된다. 죽음은 생의 마지막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봄으로써(Lee & Kang, 2016) 참된 자아를 인식하게 되고, 이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삶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신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며, 자아 정체성과 삶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정규교육과정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교육에 의미가 있다. 또한, ‘자기중심성’으로 인해 위험한 행동을 해도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등 ‘개인적 우회’를 가진 청소년기의 특성상 올바른 죽음준비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정교과에서 다루는 변화하는 가족, 건강 가정, 친밀한 관계를 위한 의사소통 방법과 갈등관리 등은 의료서비스의 발달과 가족의 돌봄, 가족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식을 통해 삶과 죽음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길어진 노년기, 1인 가구의 증가, 돌봄과 장례 병원 서비스화 등을 비롯한 가족 구조와 가족 기능의 변화로 죽음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의사결정, 돌봄과 관련된

가족 간의 갈등은 현재보다 청소년이 살아갈 미래에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죽음과 돌봄, 가족원의 돌봄에 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통해 앞으로의 삶에 대비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죽음의 인식을 통한 자신의 인식을 통해 타인의 인식과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들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느끼고, 유한한 삶에서 행복하게 관계를 맺는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다.

둘째, ‘생활문화’와 ‘안전’의 핵심 개념 관점에서 살펴보면,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판단이 자신이 속한 사회 구성원의 가치(문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Kim, 2018) 웰다잉 가족문화를 넘어 좋은 웰다잉 사회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웰다잉 사회문화는 곧 모두가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다. 죽음 교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던 가정이 그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as cited in Fonseca & Testoni, 2011, p.163-164) 죽음과 관련된 사회문화는 자본주의화 되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가정·사회 문화의 변화 원인을 알고, 웰다잉 사회문화 형성을 위한 개인, 가족의 노력은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사회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최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안전’에 대한 교과 내용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산업·자연 재해 혹은 의·식·주생활에 내재된 다양한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어떤 생활태도를 지니며, 웰다잉을 위협하는 사회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Ulrich Beck(2010)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risk society)로 규정했다. 위험은 늘 내재되어 있지만, 오늘날의 위험은 과거의 위험과 달리 개인적이거나 우연적이지 않으며, 사회체계의 속성자체에 탑재되어 있다(Ulrich, 2010). 특히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는 의·식·주문제는 정치·사회·문화와 밀접하며, 개인이 실천해야 할 안전의 문제보다 사회체계 속에 깊이 내재된 문제이므로, 우리의 의·식·주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주체가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

셋째, ‘생활 설계’와 ‘관리’의 핵심 개념 관점에서 살펴보면, 100세 시대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삶의 양만큼 질도 중요하게 여겨야 하므로(Kim, 2018), 이에 대한 준비로 신체적·경제적 준비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죽음의 주체인 개인은 자신의 죽음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를 죽음의 자기결정권이라 한다. 현대인은 의료의 발달로 죽음의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임종을 앞둔 환자의 약 30%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느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 가정이 아닌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현대인들이 직면한 죽음에 대한 현실이다(Kim, 2018). 가정은 개인, 가족 생활주기에 따른 생활설계와 인적·물적 자원의 관리를 다루고 있으므로, 행복한 죽음(삶)을 위해 자신이 가진 자원을 관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또한 가정교과에서 다루는 저출산·고령화와 1인가구의 증가 등 가족과 가구 형태의 급격한 변화는 돌봄, 죽음의 선택이 개인의 문제화 되면서, 최근 법제화된 연명의료결정법 등과 함께 자신의 죽음에 대해 성찰하고 의사결정해야 하는 일이 많이 지고 있다. 따라서 생활 설계에서 죽음에 대해 성찰하고, 행복한 죽음을 위한 죽음자기결정권 실행을 위한, 즉 주체적인 삶을 위한 생활설계교육과 자원 관리교육이 가정교육에서 필요하다.

가정교과의 핵심개념과 죽음교육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자신의 행복한 죽음을 넘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를 가정과 수업에 통해 창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적영역 뿐만 아니라 공적영역에서도 죽음에 관한 담론이 형성되어야 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적극적 행동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죽음에 관하여 자신에 대한 성찰과 가족문화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 사회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내야 하며 이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는 비판적 사고능력 타인을 배려하는 실천적 추론능력을 함양하는 (Byun & Chae, 2002) 가정과의 실천적 문제를 통해 실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가정교과에서의 죽음준비교육의 정의는 자신과 가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웰다잉(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실천적 문제의 해결을 통해 죽음과 관련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가치적 차원의 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죽음을 준비하고(예방적), 죽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고(개입), 죽음과 관련된 상실과 슬픔을 극복함으로써 삶을 성찰하여(치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개인의 죽음은 사회·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웰다잉에 관한 사회문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의 삶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교과의 죽음준비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깨닫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인간의 필연적인 죽음을 회피하기 보다는 인간의 마지막 성장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성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상생활과 매일의 의식주 생활 속에서의 실존하는 하는 삶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가정 교과와 죽음준비교육의 목표가 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ADDIE모형의 단계의 I(implementation) 단계인 실행 단계를 생략하고 분석, 설계, 개발, 평가 4단계의 절차를 거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가정교과 죽음준비교육 실천적 문제와 교수·학습과정을 개발하고 평가하였다 (Table 3 참조).

분석 단계에서는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죽음준비교육 선행 연구,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기술·가정 중·고등학교 교과서 5종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가정교과와 죽음준비교육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가정교과에서의 죽음

준비교육의 내용요소를 추출하였다. 분석을 통해 가정교과에서의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명을 ‘나와 가정의 행복한 삶을 위한 웰다잉’으로 설정하였다.

설계 단계에서는 분석단계에서 추출된 죽음준비교육 내용요소를 통해 가정교과의 죽음준비교육의 실천적 문제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가정과 죽음준비교육 실천적 문제의 타당성, 가정과 죽음준비교육 교수·학습지도안의 내용타당성 검증을 위한 죽음준비교육 평가 요소를 설계하였다.

개발 단계에서는 개발된 실천적 문제 중 중학교 2가지, 고등학교 2가지 총 4가지를 선정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현장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중학교(3차시), 고등학교(2차시) 교수·학습과정을 개발하였으며, 타당도 검증을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평가 단계에서는 가정교육 전문가 17인, 죽음준비교육 전문가 1인의 전문가 검증을 통해 개발된 하위 실천문제의 타당도와 죽음준비교육 교수·학습 과정안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검증과정은 평가 자료를 포함한 타당도 설문지를 가정과 교육·죽음준비교육 전문가의 전자메일로 송부한 후 평가결과를 메일로 받았다(9월 30일에서 10월 15일). 평가 문항은 Noh, Cho와 Chae(2017)의 타당도 평가지를 연구자가 재구성

Table 3. Content of study method

Stage	Contents
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revised middle and high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achievement standard, textbook analysis ■ Analysis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concept and preliminary study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 Extraction of contents elements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in Home Economics ■ Name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for Home Economics : Well-dying for the happy life of me and my family
Desig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velopment of practical problems: Development of practical problems based on the content of Home Economics's death preparation education (August 20, 2018 to August 30, 2018) ■ Death preparation education evaluation elements design: The validity of the practical problem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The validity of the teaching-learning plans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velopment of teaching-learning plan: middle school-3 session, high school-2 session (September 1, 2018 to September 25, 2018) ■ Death preparation education evaluation questionnaire development : Development of a questionnaire for evaluating the validity of the practical problems and the contents of the lessons for the preparation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in Home Economics course
Evalu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pert evaluation : Home Economics education specialist(16 people), death preparation education specialist(1 person) feedback (September 30, 2018 to October 15, 2018) ■ Final completion : Final completion by modifying and supplementing (October 20, 2018)

하여 사용하였고, 내용 타당도 지수를 산출하여 타당도 수준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연구자가 재구성한 타당도 평가는 크게 세 영역(가정 교과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명, 가정 교과 죽음준비교육의 실천적 문제, 가정과 죽음준비교육 교수·학습과정안 학습목표 및 학습활동에 대한 타당도)의 타당도를 묻는 것으로 실천적 문항의 죽음준비교육의 적합성에 관한 선택형 16문항 및 개방형 1문항, 차시별 목표에 따른 학습 내용과 학습활동에 대한 선택형 문항 12문항 및 개방형 문항 4문항으로 총 33문항이다. 선택형의 경우 5점 리커트형으로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전문가의 평가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내용 타당도 지수(CVI: Index of Content Validity)를 산출하여 이 값이 80% 이상일 경우 타당도 수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Hwang, 1998), 이때 각 문항에 대해 전문가 평가가 ‘매우 그렇다(5)’, ‘그렇다(4)’를 받을 경우 연구자와 전문가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평가 영역 가운데 내용 타당도 지수(CVI)가 80% 미만인 영역, 혹은 내용 타당도 지수(CVI)는 80%이상인 영역이더라도 개방형 문항을 통해 평가자들이 남긴 의견 중 필요한 경우 이를 프로그램을 수정·보완에 적극 반영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내용타당도 지수는 다음과 같다.

$$\text{내용타당도 지수 CVI(\%)} = \frac{\text{연구자와 평가자 간의 견해가 일치하는 문항수}}{\text{전체응답수}} \times 100$$

IV. 연구 결과

1. 가정 교과에서의 죽음준비교육을 위해 도출된 실천적 문제

가정 교과에서의 죽음준비교육을 위한 실천적 문제는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인간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그리고 ‘자원관리와 자립’의 세 영역별 내용요소에 따라 각 4개씩 총 12개의 실천적 문제를 개발하였다.

<Table 4>에서 보듯이,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에서 개발된 실천적 문제는 ‘사랑하는 존재(가족, 친구, 반려 동물 등)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죽음의 이슈와 관련된 가족원의 갈등 관리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웰다잉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령화 사회에서 웰다잉을 준비

Table 4. Death preparation education based on content elements of the 2015 revised Home Economics curriculum practical problems

Domain	Core concept	Content element	Practical problem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Develop	Characteristics of adolescence development, friendship in adolescence, healthy friendship, care, caring	- What should I do to comfort a friend who is saddened by the death of a loved one(family, friend, companion animal, etc.)?
		Changing family, healthy family, family relationships, conflict management	- What should I do to manage family conflicts related to death issues?
	Relationship	Good communication, family conflict resolution, democratic family relations	- What should I do for effective communication for well-dying?
Home Life and Safety	Living culture	Intergenerational relations, changes in society, changes in family structure and function	- What should I do to prepare for well-dying in an aging society?
		Living in clothes·food·housing, nutrition and diet, meal plan, family life culture	- What should I do to lead a clothes, food, and housing life for well-dying?
		Creating a happy family life culture, creative family life culture creation	- What should I do to create a well-dying family culture?

<표 계속>

Domain	Core concept	Content element	Practical problem
	Safety	Safe life, youth life and problems, sexual violence, family violence, housing life safety	- What should I do to create a safe home and social environment for the happiness of me, my family, and others?
		Safety by family life cycle, healing and recovery of family	- What should I do to heal family problems and strengthen family resilience?
Resource management and independence	Management	Self-management, sustainable life	- What should I do to manag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for well-dying?
		Home welfare service, sustainable consumption	- What do I have to do to solve various consumer issues related to death?
	A lifelong design	Life design, self-supporting life, career exploration	- What should I do to design a career to realize the value of my life?
		Personal/family life design, independent retirement life	- What should I do to prepare for an independent life of old age?

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다.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의 ‘발달’ 핵심 개념의 실천적 문제는 청소년 자신의 발달 특징에 대한 이해와 건강한 친구관계를 통한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자신의 소중한 존재의 죽음을 경험한 친구를 위로하는 죽음에 관한 슬픔의 감정을 공유하는 정서적 차원 학습경험을 넘어 친구의 죽음의 문제를 도와주는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해야하는지, 그리고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함에 의의가 있다. ‘관계’ 핵심 개념의 실천적 문제는 죽음과 관련하여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 간의 죽음에 관한 갈등의 해결 방안을 탐색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은 현재보다 더욱더 길어진 노년기로 죽음, 돌봄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위한 가족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강하고 민주적인 가정을 위한 죽음에 관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능의 향상을 통해 가족 내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한다.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기능과 변화로 길어진 노년시기를 가치있게 보내고 과거의 가족이 해왔던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가족의 역할을 개인·가족·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웰다잉을 준비하게 한다.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에서 개발된 실천적 문제는 ‘웰다잉을 위한 의·식·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웰다잉 가족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 가족, 타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안전한 가정과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족의 문제

를 치유하고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다.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의 ‘생활 문화’ 핵심 개념에서 제시된 의·식·주는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기본으로 인간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따라 삶의 모습도 달라진다. 특히, 의·식·주는 나와 가족뿐만 아니라 타인,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함께 웰다잉 할 수 있는 배려와 나눔의 가정생활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안전’ 핵심 개념의 안전한 사회의 형성은 웰다잉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특히, 현대 사회는 개인의 안전 인식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사회 기반체계에 안전의 문제가 있으며, 21세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 오염사고 등은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재난이며, 개인의 힘으로 컨트롤 할 수 없지만, 개인과 가족의 웰다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안전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개인과 가족은 깨어 있어야 하며, 안전한 사회를 형성을 위한 참여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웰다잉을 위해 필요하다.

‘자원관리와 자립’ 영역에서 개발된 실천적 문제는 ‘웰다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관리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진로 설계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노후의 자립적인 삶을 준비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자원관리와 자립’ 영역의 ‘관리’ 핵심 개념에서는 길어진 노년의 행복을 위해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자립적인 노후를

위한 생애설계와 자원관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 시기의 자원 관리는 성인의 자원관리로 연결되어, 노년의 삶과 웰다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한 현대사회는 다양한 죽음과 장례·웰다잉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소비자 권리와 역할을 이해하고, 웰다잉과 관련된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책임 있는 소비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생활 설계’ 핵심 개념에서는, 생의 건강한 마감인 ‘웰다잉’을 위해서는 저출산·고령 사회가 개인 및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장·단기적 준비 사항을 예측해 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설계를 실천하게 한다. 생애주기별 발달 과업, 가치관, 직업, 건강, 경제적 자립 등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애를 설계하고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생애설계를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전 생애 관점에서의 진로 설계를 포함한 생애 설계를 통해 자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2. 가정교과에서의 죽음준비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

중·고등학교의 다양한 단위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안내하고자,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발달과 관계 핵심개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안전과 생활문화 핵심개념의 단위 내용에 적합한 실천문제를 각 2가지씩 선정하여 각 1~2차시, 총 5차시를 개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Table 5>과 같다.

‘사랑하는 존재(가족, 친구, 반려 동물 등)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친구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령화 사회에서 웰다잉을 준비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웰다잉 가족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족의 문제를 치유하고 가족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4가지 실천 문제를 Laster(1982)의 실천적 행동수업모형을 적용하여 개발한 교수·학습 과정안은 <Table 6>에서 <Table 9>까지와 같다. <Table 7>의 실천문제인 ‘고령화 사회에서 웰다잉을 준비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경우, 죽음준비교육과의 주제 적합성이 높아 2차시로 개발되었다.

Table 5. Practical problems in Home Economics death preparation education teaching-learning plans outline

	Learning topics	Practical problem	Related Unit Name	Learning Objectives
middle school	Let's share your friend's sorrow. ♥	What should I do to comfort a friend who is saddened by the death of a loved one(family, friend, companion animal, etc.)?	2. Youth sex and friendship	1. I can understand the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of adolescence. 2. I can sympathize with the sorrow of a friend due to the death of a precious existence. 3. I can present how to share your friends' sadness and how to practice.
	Get ready for a happy life, well-dying!	What should I do to prepare for well-dying in an aging society?	2 Let's look at the effects of low fertility and aging on our lives.	1. I can say that the interest in death is heightened in aging society. 2. I can explain why I should prepare for well-dying from my youth. 3. I can present and practice well-dying practice.
high school	Well-dying culture with your family!	What should I do to create a well-dying family culture?	1. Create a healthy family culture.	1. I can understand the meaning of family culture. 2. I can explain changes in culture of death culture as changes of values, family(structural, functional) and as society. 3. I can suggest ways to create a well-dying family culture.
	Strengthen family resilience ★	What should I do to heal family problems and strengthen family resilience?	2. Family healing and recovery	1. I can talk about various family problems (conflicts) related to death. 2. I can find and utilize measures to heal family problems. 3. I can suggest and implement action plans to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the family.

Table 6. Death preparation education teaching-learning plan 1 for middle school students











학습주제	친구의 슬픔, 함께해요♥																
실천적 문제	‘사랑하는 존재(가족, 친구, 반려 동물 등)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친구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차시 1차시															
관련 단원명	2. 청소년의 성과 친구관계																
학습목표	1. 청소년기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이해할 수 있다. 2. 소중한 존재의 죽음으로 인한 친구의 슬픔을 공감할 수 있다. 3. 친구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방법과 실천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생각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들어 하는 반려견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반려견 가족의 슬픔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 자신이 겪은 소중한 존재와의 이별한 경험을 친구와 나누어 봅시다. 출처 : http://www.youtube.com/watch?v=C3gwo9aarS4															
실천적 추론과정 ① 문제인식 ② 문제의 배경과 맥락이해	<p>▶ 다음 사례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아픈 아버지로 인해 슬픔을 겪고 있는 친구(민정)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학급에 가까운 존재의 아픔·죽음으로 인해 슬픔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의 상실의 경험을 떠올리며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p> <p>Step 1. 친구의 슬픔 공감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경험이 있는가? 그때의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그때 상황은? 그때의 나의 감정은? - 내가 지금 민정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p>Step 2. 나에게 힘이 되어준 친구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p1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힘이 되어준 사람·책·음악·문구는? 그 이유는? - 교과서를 참고하여 청소년기 정서적·사회적 발달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 청소년의 정서·사회적 발달의 특징이 청소년이 경험한 상실(이별)의 슬픔에 미치는 영향은? <p>step 3. 새로운 시작 - 애도의 5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p1 상황에서 나의 감정의 변화 생각하며 애도의 5단계를 적어 봅시다. (단, 5단계 칸을 모두 채울 필요는 없다.) <table border="1" data-bbox="278 1152 1259 1299"> <tr> <td>1단계</td> <td>부정</td> <td></td> </tr> <tr> <td>2단계</td> <td>분노</td> <td></td> </tr> <tr> <td>3단계</td> <td>타협</td> <td></td> </tr> <tr> <td>4단계</td> <td>우울</td> <td></td> </tr> <tr> <td>5단계</td> <td>수용</td> <td></td> </tr> </table> <p>출처 : Elisabeth Kübler-Ross(2018). 죽음과 죽어감. 서울: 청미</p>		1단계	부정		2단계	분노		3단계	타협		4단계	우울		5단계	수용	
1단계	부정																
2단계	분노																
3단계	타협																
4단계	우울																
5단계	수용																
③ 대안적 행동과 파급효과	<p>step 4. 상실·이별·죽음을 경험한 친구의 슬픔 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픔을 극복한 사례가 있었나요? 짝꿍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 상실·이별·죽음의 슬픔을 극복한 사례를 스마트폰으로 찾아봅시다. - 애도의 몇 번째 단계에서 친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 까요? 그 이유는? 																
④ 행동 및 평가	<p>step 5. 상실·이별·죽음을 경험한 친구에게 도움 제공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를 위로·도와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해 보자. - 동영상시청 >‘가족쇼크 7부 마지막 식사’ 출처 : http://www.youtube.com/watch?v=F-yQ-6GRJ-g <p>추론을 위한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를 위해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나는 누구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까? 이유는? - 내가 이런 상황일 때, 친구가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지 역사시지로 생각해보자. - 친구의 슬픔 함께 나누는 방안 3가지 적어보고, 옆 친구와 의견 나누기 - 친구와 최선의 대안(방안) 선택하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 세우기 																

Table 7. Death preparation education teaching-learning plan 2 for middle school students

학습주제	행복한 삶을 위해 준비해요, 웰다잉!														
실천적 문제	고령화 사회에서 웰다잉을 준비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차시	2차시												
관련 단원명	2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학습목표	1. 고령화 사회에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를 말할 수 있다. 2. 청소년 시기부터 웰다잉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3. 웰다잉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다.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생각열기	 <죽음과 관련된 영화 : 신과 함께- 죄와 벌> - 죽음이란 단어를 연상하면 무슨 생각이 나는가? - 왜 죽음이란 단어가 불길하고 터부시 되는 말일까? - 죽음이후에는 정말 상과 벌은 있는 것일까? 그림 출처 : https://www.newsnack.me/seven-hells-that-appear-in-movie-gods/														
실천적 추론과정	▶ 동영상 시청  동영상1)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1천 232명으로 5년 새 78%로 늘었다<중략> 1인 가구 증가, 고령화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가적 예방 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이다.  동영상2) 죽음을 피하지 않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중략> 삶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는 계기도 된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출처 : http://www.gomtv.com/view.gom?contentsid=14833115&auto=1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6888425														
① 문제인식	step 1> 내가 맞이하길 원하는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자. ① 준비되지 않은 죽음과 준비된 죽음은 나, 가족,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table border="1" data-bbox="274 956 1268 1081"> <thead> <tr> <th></th> <th>준비되지 않은 죽음</th> <th>준비된 죽음</th> </tr> </thead> <tbody> <tr> <td>나</td> <td></td> <td>남은 시간을 가치 있는 일에 씀</td> </tr> <tr> <td>가족</td> <td>가족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td> <td></td> </tr> <tr> <td>사회</td> <td>돌아가신 사람의 정례, 사회적비용</td> <td></td> </tr> </tbody> </table>				준비되지 않은 죽음	준비된 죽음	나		남은 시간을 가치 있는 일에 씀	가족	가족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		사회	돌아가신 사람의 정례, 사회적비용	
	준비되지 않은 죽음	준비된 죽음													
나		남은 시간을 가치 있는 일에 씀													
가족	가족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														
사회	돌아가신 사람의 정례, 사회적비용														
② 문제의 배경과 맥락이해	② 웰다잉이란?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step 2>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행복수명에 대해 알아보자. <table border="1" data-bbox="274 1199 1268 1348"> <thead> <tr> <th><자료1>한국인 평균수명 증가 추이</th> <th><자료2>100세시대 '행복수명'은 60대</th> </tr> </thead> <tbody> <tr> <td>  자기의 예상 생존 기간은 얼마나 될까. 계산법은 '120 - 자기 나이'이다. 지금 내 나이가 60이면 60년은 더 산다. </td> <td>  행복수명 30대부터 준비를.<중략>노후 20년 빈곤·질병 시달려...가족들마저 불행의 늪으로<중략>가속화된 고령화로 큰 충격 예상 </td> </tr> <tr> <td>출처 :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13/2013101301030.html</td> <td>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5&no=933471</td> </tr> </tbody> </table>			<자료1>한국인 평균수명 증가 추이	<자료2>100세시대 '행복수명'은 60대	 자기의 예상 생존 기간은 얼마나 될까. 계산법은 '120 - 자기 나이'이다. 지금 내 나이가 60이면 60년은 더 산다.	 행복수명 30대부터 준비를.<중략>노후 20년 빈곤·질병 시달려...가족들마저 불행의 늪으로<중략>가속화된 고령화로 큰 충격 예상	출처 :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13/2013101301030.html	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5&no=933471						
<자료1>한국인 평균수명 증가 추이	<자료2>100세시대 '행복수명'은 60대														
 자기의 예상 생존 기간은 얼마나 될까. 계산법은 '120 - 자기 나이'이다. 지금 내 나이가 60이면 60년은 더 산다.	 행복수명 30대부터 준비를.<중략>노후 20년 빈곤·질병 시달려...가족들마저 불행의 늪으로<중략>가속화된 고령화로 큰 충격 예상														
출처 :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13/2013101301030.html	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5&no=933471														
③ 대안적 행동과 파급효과	① 평균수명과 행복수명의 차이를 적어봅시다. ② 행복수명과 웰다잉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③ 행복수명을 청소년기부터 준비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step 3> 웰다잉 법(연명의료결정법)이란? ① 동영상과 자료를 통해 웰다잉 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동영상 시청>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 <table border="1" data-bbox="274 1571 1268 1701"> <tbody> <tr> <td>정식명칭</td> <td>'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td> </tr> <tr> <td>정의</td> <td>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td> </tr> <tr> <td>필요성</td> <td></td> </tr> <tr> <td>사전연명 의료의향서란?</td> <td></td> </tr> </tbody> </table>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uUZuztefPQ8&feature=youtu.be , 출처 : 시사상식사전(2018.03.07.)			정식명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정의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	필요성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란?					
정식명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정의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														
필요성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란?															

<자료3> 죽음, 맞이하시겠습니까? 맞으시겠습니까? : 웰다잉 법

사전의료의향서 : 환자가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미리 작성한 의향서나 계획서도 없는 경우 가족의 진술이나 의사로 결정한다.

'또 하나의 유언장'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중략>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3000006&cat=210100

④ 행동 및 평가

step 4> 행복수명, 웰다잉(준비된 죽음)을 방해 하는 요인은?

① 웰다잉을 방해하는 요인을 생각해보고, 그 요인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을 추론해 보자. 각각의 원인을 비판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개인, 가족, 사회적 측면)을 생각해 보자.

웰다잉 방해 요인	근본적 원인-비판	결과	해결 방안
노인 1인 / 부부가구 증가		고독사의 증가	가족 : 가족 교류 늘리기 사회 : 노인 코하우징 확대
무의미한 연명치료	병원에서 연명의료 행위를 통한 경제적 이득의 취득	환자의 고통, 죽음의 자기결정권 박탈	개인 : 가족 : 사회 :
가족 내 장례문화 사라짐	병원과 장례식장이 한곳에 있음(병원의 경제적 이익 추구-자본주의 폐해,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인)	장례의식의 상품화	

step 5> 임종 체험하기

임종사진찍기, 유서쓰기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자.

- 남은 삶이 3개월 남은 시한부라고 상상하고 유언을 작성해 보자.
- 유서쓰기 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가? 그 이유는?

step 6> 웰다잉 플랜 세우기!

- ▶ 웰다잉을 위해 청소년인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웰다잉을 위해 청소년인 지금 나와 약속할 수 있는 3가지 실천 사항을 적어보자.
- ▶ 웰다잉에 대한 서로의 결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행동전략을 세운다. ▶ 의견 공유하기

Table 8. Death preparation education teaching-learning plan 3 for high school students

학습주제	가족과 함께 하는 웰다잉 문화!														
실천적 문제	웰다잉 가족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차시	1차시												
관련 단원명	1. 건강한 가족 문화를 형성하자.														
학습목표	1. 가족 문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2. 가치관, 가족의 변화(구조, 기능), 사회의 변화에 따른 죽음 문화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웰다잉 가족 문화의 창조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생각열기	<p>우리나라의 전통문화는 대가족 중심으로 죽음을 접하는 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또한 공동체에서 장례를 함께 치르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의 마을공동체의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죽음은 인간의 출생에서부터 삶과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이해되었으며, 인생에 있어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핵가족화 등 가족 및 사회구조의 변화와 아울러 IMF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의 해체 등으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고, 특히 장례가 집이 아닌 장례식장에서 진행되면서 죽음은 삶과 분리되었고 전문가가 담당해야 하는 영역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습니다. <중략> 출처 : http://goodnannum.or.kr/?page_id=108</p> <p>- 과거와 현재의 죽음 문화는 어떻게 변했나요?</p>														
실천적 주론과정	<p>입기자료 1> 대다수 한국인의 죽음은 넓은 의미에서 ‘고독사’다. 사망 인구 4명 중 3명(74.9%, 2016년)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다. 치료의 공간에서 연명장치에 의존하다 의사의 사망선고로 생을 마감하고, 가족과의 작별인사와 같은 연속한 마지막 절차는 거의 생략된다. 임종은 자연스러운 삶의 끝이 아니며, ‘치료의 실패’로 꽃피듯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생사의 문제를 의학이 주도하고, 죽음을 ‘의학의 실패’로 인식하며 어떻게 해서든 삶을 연장하려는 ‘죽음의 의료화’가 한국인의 ‘좋은 죽음’을 방해하는 주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중략>세계에서 가장 ‘죽음의 질’이 좋은 나라라는 영국에서는 일찍이 ‘좋은 죽음’을 이렇게 정의했다.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가족·친구와 함께 고통 없이 죽어가는 것” 한때 한국인은 일상적으로 낯선 병원에서 영문도 모른 채 기계에 둘러싸여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는다.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2342957</p> <p>입기자료 2> 영사집가 박모(54)씨는 몇 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의 죽음이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했다. 96세로 돌아가신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충기를 잃지 않았고, 가말일처럼 말라가면서도 고향의 집에서 임종하기를 원했다. 박씨도 할머니를 돌봐줄 사람을 구해 시골집으로 보내드리려고 했으나 부모님과 숙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연로한 어머니를 고향집에 버려둔다면 자식들이 효녀라는 게 이유였다. 결국 할머니는 병원의 좁은 침상에서 돌아가셨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죽음의 모습은 대략 이렇듯기에 박씨는 처음엔 “애도”보다 ‘장례’에 쫓겨 할머니를 보았다. 그러나 괴로움과 상처는 그 이후에 찾아왔다. 당시 뜻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평생은 가족들에 치여 헌신만 했던 할머니의 일생과 낯선 병실에서 걸먹은 눈으로 집에 가고자 했던 마지막 지를 끝내 꺾어버렸던 가족 안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이 오버랩되며 문득문득 견딜 수 없게 괴롭다고 했다.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2342957</p>														
① 문제인식	<p>step1> 과거와 현재의 임종 문화를 알아보자. ① 과거와 현재의 임종문화를 비교하여 적어보자. ② 임종(죽음)문화는 왜 중요할까? ③ 임종이나 장례 의식에 참여한 경험을 이야기 해 봅시다. [하나더 알기!> 고독사(孤獨死) vs 고립사(孤立死)]</p>														
② 문제의 배경과 맥락이해	<p>step2> 가족문화란 무엇일까? - 가족 문화의 정의를 교과서에서 찾아 적어봅시다. - 가족 문화는 왜 중요할까? 조원들과 토의하여 정리하여 적어보자.</p> <p>step3> 가족 내의 임종, 장례(죽음) 문화가 사라진 원인과 그 결과는?</p>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원인</th> <th>결과</th> </tr> </thead> <tbody> <tr> <td>개인</td> <td>- 결혼 가치관 - 효 가치관의 변화</td> <td></td> </tr> <tr> <td>가족</td> <td>- ‘연명의료=효 관념’라는 죽음에 대한 잘못된 가족 가치관</td> <td>- 죽음의 질 하락, 가족 간 갈등 등</td> </tr> <tr> <td>사회</td> <td>- 과잉의료와 장례식장 중심의 병원운영 체제 - 자본주의</td> <td>- 많은 치료비로 가족사회적 부담, 죽음의 자기 결정권 박탈 - 높은 장례비용으로 가족간 갈등이나 상대적 박탈감 등</td> </tr> </tbody> </table>				원인	결과	개인	- 결혼 가치관 - 효 가치관의 변화		가족	- ‘연명의료=효 관념’라는 죽음에 대한 잘못된 가족 가치관	- 죽음의 질 하락, 가족 간 갈등 등	사회	- 과잉의료와 장례식장 중심의 병원운영 체제 - 자본주의	- 많은 치료비로 가족사회적 부담, 죽음의 자기 결정권 박탈 - 높은 장례비용으로 가족간 갈등이나 상대적 박탈감 등
	원인	결과													
개인	- 결혼 가치관 - 효 가치관의 변화														
가족	- ‘연명의료=효 관념’라는 죽음에 대한 잘못된 가족 가치관	- 죽음의 질 하락, 가족 간 갈등 등													
사회	- 과잉의료와 장례식장 중심의 병원운영 체제 - 자본주의	- 많은 치료비로 가족사회적 부담, 죽음의 자기 결정권 박탈 - 높은 장례비용으로 가족간 갈등이나 상대적 박탈감 등													
③ 대안적 행동과 파급효과	<p>step 4> 웰다잉 가족문화란? ①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웰다잉 가족문화를 정의하고,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자료 1: 선진국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메뉴얼 자료 2: 죽음의 자기 결정권 자료 3: 사회적 장례 서비스의 필요성</p> <p>② 웰다잉 가족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웰다잉 사회문화도 중요하다. 그 이유는?</p>														
④ 행동 및 평가	<p>step 5> 웰다잉 가족문화 창조방안 제안하기 웰다잉 가족 문화 형성 방안을 조원들과 상의하여 3가지 제안해 봅시다. ex. 1. 가족들과 죽음과 장례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2. 3.</p> <p>과제> 로마의 철학자인 키케로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의 의미는?</p>														

Table 9. Death preparation education teaching-learning plan 4 for high school students

학습주제	가족 회복 탄력성 강화하기 ★		
실천적 문제	가족의 문제를 치유하고 가족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차시	1차시
관련 단원명	2. 가족의 치유와 회복		
학습목표	1.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가족의 문제(갈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가족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활용할 수 있다. 3. 가족 회복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다.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생각열기	▶ 자신이나 가족원 혹은 주변 사람이 아팠던(질병)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 그때 나의 감정은 어땠나요? - 그 사건(경험)은 나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실천적 추론과정	▶ 고등학교생인 가연이의 아버지는 대장암 말기를 진단받으셨다. 가연이는 물론 할머니, 어머니, 초등학교 남동생 모두 아버지의 병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고 있고, 아픈 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병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인지 마음 아파하고 있다. 당장 아버지의 치료를 위한 치료비와 초등학교 남동생을 돌봄도 걱정이지만, 남은 아버지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곁에서 아버지를 간호해 드리고 싶다. 그러나 늦은 시간까지 학업을 해야 하므로 가연이는 고민이 많다.		
① 문제 인식	step1> 가연이 가족 문제 파악하기 ① 아버지의 갑작스런 병의 진단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브레인 스토밍) 정서적 문제 -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의 심리적 충격, 혼란 경제적 문제 - 치료 및 돌봄 비용 가족간 역할 문제 - ② 가연이 가족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		
② 문제의 배경과 맥락 이해	step2>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가족 문제(갈등) 알아보기 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가족 문제(갈등)를 찾아보자. ② 이러한 가족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step 3> 가족 회복 탄력성과 지원체제 ① 가족 회복 탄력성의 정의를 교과서에서 찾아 적어봅시다. ② 가연이네 가족 문제 치유를 위해 가족 회복 탄력성이 중요한 이유는? ③ 가연이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제는 무엇일까?		
③ 대안적 행동과 파급효과	하나 더 알기!> 지금까지 가족은 예측하지 못한 변화와 위기를 가족의 사랑과 돌봄, 물질적·심리적·정서적 지원을 통해 극복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족의 위기 상황을 가족만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지역 사회와 국가가 가족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회 지원 체계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step 4> 가연이 가족 문제 치유하기 ① 가연이 가족 문제 치유 전략 세우기		
	가연이 가족 문제	활용 가능한 가족/사회적 자원	치유/해결 방안
	아버지 병의 치료		
병원비	- 'bokjiro.go.kr'에서 국가지원 가능한지 알아보기 -		
돌봄의 문제	-		

<p>④ 행동 및 평가</p>	<p>② 전략 평가를 위한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가족원에게 역할이 집중되지 않았는가? - 더 좋은 대안은 없는가? -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가족원은 누구일까? -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 가족 문제를 치유한 후 가연이네 가족이 겪게 되는 긍정적 효과는? ex.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가족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 <p>step 5> 우리 가족 회복 탄력성 강화하기</p> <p>① (생각열기에서) 최근 가족 문제의 경험은 가족 회복 탄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나요?</p> <p>② 우리 가족의 회복 탄력성이 더 높/낮았다면 어떠했을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회복 탄력성이 더 높았다면? - 가족 회복 탄력성이 더 낮았다면? <p>③ 가족 회복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해보자.</p> <p>▶ 가족 탄력 회복성의 강화를 위한 방안 평가 및 의견 나누기</p>
------------------	--

3. 가정 교과에서의 죽음준비교육 교수·학습 과정안에 대한 타당도 평가

연구자가 개발한 죽음준비교육을 위한 실천적 문제 교수·학습 과정안의 명칭과 내용과 수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가정교과교육 전문가와 죽음준비교육 전문가들에게 이 프로그램의 타당도를 평가받았다. 타당도 평가에 대한 검증 내용은 Noh 외(2017)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개발된 교수·학습 과정안의 평가는 세 영역(가정 교과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명, 가정 교과 죽음준비교육의 실천적 문제, 가정과 죽음준비교육 교수·학습과정안 학습목표 및 학습활동에 대한 타당도)에 대해 가정교과교육 전공 교수 3인과 죽음준비교육 전공 교수 1인, 석사학위 이상의 현장 가정교과 교사 13인, 총 17명으로부터 5점 리커트형 설문지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죽음준비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명과 실천적 문제의 내용 타당도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Table 10>에서 보듯이, 가정교과의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명은 당초에 ‘나와 가정의 행복을 위한 웰다잉’으로 프로그램명에 대한 타당도 검사 결과, 5점 만점에서 평균 4.35이고 연구자와 평가자의 의견이 일치하는 정도에 대한 내용타당도 지수인 CVI 지수는 82.35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개방형 질문에서 제시한 평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나와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으로 그 명칭을 수정하였다.

죽음준비교육의 실천적 문제의 경우, 16개의 실천적 문제의

평균이 4.04이고 CVI는 76.47로서 내용타당도가 적합하다는 기준인 80아래였다. 따라서 평균 CVI의 평균을 높이기 위해서 16개의 실천적 문제 중에 CVI가 60이하이고 평가자가 삭제를 요구한 실천적 문제는 삭제하였다. 이렇게 삭제된 실천적 문제는 ‘2. 행복한 삶을 위한 성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3. 죽음과 삶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하지만 ‘10. 안전한 가정과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같이 58.82%라는 낮은 타당도를 보인 실천적 문제라도, 이 문항이 가정교과에서의 죽음준비교육에 타당한 문항이라고 의견을 주었을 경우 이 문항의 실천적 문제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평가자는 이 문항의 실천적 문제는 갑작스런 죽음이 아닌 준비하고 맞이하는 죽음, 즉 안전하지 않은 사회 환경 때문에 갑작스런 사고를 통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한 사회 환경이 중요하다고 개방형 질문에 의견을 주었기에, 연구자의 숙고를 통해서 이 문항도 실천적 문제로 포함하였다. 이에 이 문항의 실천적 문제를 ‘10. 나, 가족, 타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안전한 가정과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수정하여 포함하였다.

한편 타당도가 90%이상이지만 개방형 질문에서 평가자가 이 문항의 실천적 문제가 가정 교과의 내용과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거나, 다른 실천적 문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문제라고 삭제할 요구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문항들을 삭제하였다. 삭제된 문항은 ‘8.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돕기 위해 나는 무엇

Table 10. Assessment of the validity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title and practical problem in home economics curriculum

Appropriateness of each Practical Problem	Mean	CVI (%)	revision or deletion
Program name : Well-dying for the happy life of me and my family	4.35	82.35	revision
Revised name: 'Death preparation education for happy life of me and family'			
1. What should I do to comfort a friend who is saddened by the death of a loved one(family, friend, companion animal, etc.)?	4.44	94.11	
2. What should I do to shape the gender values for a happy life?	3.13	41.17	deletion
3. What should I do to build values for death and life?	4.44	94.11	deletion
4. What should I do to manage family conflicts related to death issues?	4.31	82.35	
5. What should I do for effective communication for well-dying?	4.00	70.58	
6. What should I do to prepare for well-dying in an aging society?	4.63	82.35	
7. What should I do to lead a clothes, food, and housing life for well-dying?	4.00	76.47	
8. What should I do to help family members need care?	4.438	94.11	deletion
9. What should I do to create a well-dying family culture?	4.438	88.23	
10. What should I do to create a safe home and social environment for the happiness of me, my family, and others?	3.41	58.82	revision
Revised practical problem: What should I do to create a safe home and social environment for the happy lives of me, my family and others?			
11. What should I do to heal family problems and strengthen family resilience?	3.88	76.47	
12. What should I do to utilize home life welfare service for a happy life?	3.59	58.82	deletion
13. What should I do to manag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for well-dying?	4.12	76.47	
14. What do I have to do to solve various consumer issues related to death?	3.76	64.70	
15. What should I do to design a career to realize the value of my life?	4.24	70.58	
16. What should I do to prepare for an independent life of old age?	4.59	88.24	
Total	4.04	76.07	

을 해야 하는가?’, ‘12. 행복한 삶을 위한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항이다. 이 두 문항은 다른 실천적 문제를 통해 다룰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삭제되었다.

죽음준비교육 교수·학습 과정안의 내용타당도 평가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교수·학습 과정안 1, 2, 3, 4>의 경우 가정과 죽음준비교육의 목표, 내용, 수준의 적절성을 5점 만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 후, 평균값으로 산출한 결과 전체 평균값은 4.57로 가정교육 전문가와 현장 가정과 교사, 죽음준비교육 전문가가 가정교과의 죽음준비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의 학습목표, 내용, 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개방형 평가 결과 <교수·학습 과정안 1: ‘사랑하는 존재(가

족, 친구, 반려 동물 등)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친구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아직 잘 와 닿지 않은 죽음이라는 개념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시하고 의견을 교류하도록 한 점이 좋았다’, ‘위로, 공감의 구체적인 방법을 학습하기에 좋은 것 같다.’는 의견이, <교수·학습 과정안 2: 고령화 사회에서 웰다잉을 준비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웰다잉의 등장 배경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많은 자료와 관련 활동이 웰다잉에 대한 다각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 그리고 ‘고령화와 웰다잉법이라는 사회적인 이슈로부터 시작하여 청소년인 나의 준비까지 이어지게 한 점이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많은 자료제시와 활동으로 인해 2차시 분량으로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는 의견도

Table 11. Assessment of the validity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teaching-learning plan in Home Economics curriculum

Appropriateness of each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Mean	CVI
Teaching·learning plan 1 (What should I do to comfort a friend who is saddened by the death of a loved one?)	Learning Objectives	4.35	82.4
	Contents	4.41	88.2
	level	5.29	94.1
Teaching·learning plan 2 (What should I do to prepare for well-dying in an aging society?)	Learning Objectives	4.59	94.1
	Contents	4.59	100
	level	4.41	82.4
Teaching·learning plan 3 (What should I do to create a well-dying family culture?)	Learning Objectives	4.00	88.2
	Contents	4.47	88.2
	level	4.65	94.1
Teaching·learning plan 4 (What should I do to heal family problems and strengthen family resilience?)	Learning Objectives	4.59	88.2
	Contents	4.71	100
	level	4.82	100
Total		4.57	91.66

있었다.

<교수·학습 과정안 3: 웰다잉 가족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죽음 준비의 내용과 가족의 회복탄력성을 연결시킨 점이 좋았다’, ‘웰다잉의 개념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 구성원들까지도 포함한다는 개념을 알게 될 것 같다’의 의견이 있었고, <교수·학습 과정안 4: 가족의 문제를 치유하고 가족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문화의 측면에서 장례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읽기 자료가 문제의 맥락과 배경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종합하면, 17인의 전문가 평가 결과, 개발된 교수·학습과정안은 가정교과의 죽음준비교육으로 적합하며, 학습 목표를 달성에 도움이 되는 자료와 활동으로 구성되었다는 의견 등 긍정적 의견과 다소 활동이 많이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는 의견, 중학생에게 다루기에는 내용이 조금 어렵다는 의견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청소년들은 핵가족화와 가족생활의 서비스화, 의료기술의 발

달 등으로 과거 가족내에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내에서의 죽음준비교육의 부재, 대중매체의 일방적인 죽음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 학업위주의 학교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삶의 대한 무기력과 무가치함, 그리고 폭력, 자살 등의 문제로 이어지게 하여 학생들의 행복하고 자주적인 삶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행복하고 자주적인 삶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의 중요성과 현재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중·고등학교 가정교과에서 죽음준비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Laster(1982)의 실천적 행동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죽음준비교육프로그램명은 ‘나와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이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체계에 적합한 실천적 문제와 중·고등학생을 위한 5차시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한 뒤, 가정과 교육 전문가, 죽음준비교육 전문가, 현장 가정과 교사들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보완하여 완성하였다. 개발된 죽음준비교육은 청소년에게 죽음을 터부시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의미있는 죽음을 위한 가치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타교과의 죽음준비교육의 행동적인 측면과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돕는 개입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인 치유의

측면을 포함하지 못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정 교과에서의 죽음준비교육을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전생애적인 관점에서 죽음을 인식하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죽음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숙고를 통해 자신의 삶의 가치 변화와 생활에서의 태도 변화를 꾀하여 학생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죽음준비교육은 개인적 삶의 변화를 넘어서, 가족과 타인 모두가 웰다잉 할 수 있는 가정·사회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학생들이 죽음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앞으로의 가정 교과에서의 다양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의 교사들이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상으로 죽음교육을 위한 실제적이고 유용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죽음준비 교수·학습 과정안을 통해서 수업을 받은 청소년이 자신의 행복한 죽음에 대한 성찰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성찰임을 깨닫고,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실천적 시민(active citizen)(Johnston, 1999)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4개의 실천적 문제에 따른 가정 교과의 죽음준비교육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지만, 청소년과 가정과 교사의 요구를 조사하여 그 요구에 맞게 개발하지 못한 점, 현장에서 실행하여 효과를 보지 못한 점의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로 가정 교과에서의 죽음준비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교사와 학생의 요구도 조사 및 죽음에 대한 인식조사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장교사들의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실행을 통해 학생들의 삶의 대한 가치관 변화와 웰다잉을 준비하기 위해 숙고하고 실천하는 일상생활의 삶으로 이어지는지를 조사하여 죽음준비교육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Banks, J. (1998). *다문화교육입문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Seoul: Academy Press.
- Byun, H. J. & Chae, J. H. (2002). The effect of practical reasoning instruction in Home Economics on the critical thinking: Focusing on family relations and resource managemen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4(3), 1-9.
- Byun, S. H., & Lee, P. K.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formation of the death-concepts in children. *The Korean Journal Child Education*, 18(1), 211-223.
- Chae, J. H., & Kim, S. G. (2006). A study on death anxiety of college students: A basic study for death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Conference*, 195-197.
- Choi, M. K. (2008). *A study on educational values and teaching-learning methods of the death in a nov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S. H. (1995). *Basic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death preparation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Y. S. (2016). The integrated approach of well-being and well-dying's education by using movie.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39, 241-26.
- Corr, C. A., Nabe, C. M., & Corr, D. M. (2013). *Death and dying, life and living(7th ed)*. Belmont, CA: Wadsworth.
- Decisions on life expectancy (2018.03.07.). *시사상식사전 [Sisa common sense dictionary]*. Retrieved from terms.naver.com/entry.nhn?docId=3385743&cid=43667&categoryId=43667
- Deeken, A. (1991). *Death preparation education (Germany)*. J 삶과 죽음 회지, 2.
- Deeken, A. (2014). *よく生き よく笑い よき死と出会う [Live well, laugh well, meet good death]*. Tokyo: 株式會社新潮社.
- EBSSTORY (2016. 11. 9.)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늙은*

- 개, 널 기억할게 [EBS *There is no bad dog in the world: Old dog, I will remember you*].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C3gwo9aarS4>.
- Kübler-Ross (2018). *죽음과 죽어감 [On death and dying]*. Seoul: Cheongmi.
- Fonseca, L. M., & Testoni, I. (2011). The emergence of thanatology and current practice in death education. *Omega*, 64(2), 157-169.
- Han, S. K., & Park, M. H. (2009). Christian counseling for adolescent death education. *The Gospel and Counseling*, 12, 174-200.
- Hwang, J. G. (1998). *학교학습과 교육평가 [School learning and education evaluation]*. Seoul: Education Science History.
- Jeong Gyeongsuk (2015.06.24). *죽음 준비교육 왜 필요한가? : 기획취재...행복한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 [Why is death preparation education necessary? : Planned subject covering ... Happy life and beautiful finish]*. *고령신문*. Retrieved from <http://www.goryeo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82>
- Ji, B. H. (2007). The study of a teen's critical mind. *Journal of Moral & Ethics Education*, 25, 203-228.
- Ji, B. H. (2008). Justification of death education and investigation on how to teach that.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56(3), 43-66.
- Johnston. R. (1999). Adult learning for citizenship: Towards a reconstruction of the social purpose trad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tt*, 18(3), 175-190.
- Jung, J. G. (2006). A study on death education. *Journal of Social Thoughts and Culture*, 13, 205-230.
- Jung, J. G., Lee, H. J., Lee, S. Y., & Baek, J. H. (2013). A preliminary study on death education to adolescents : Centered on the views of death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61(3), 537-562.
- Jung, J. G., Lee, H. J., Lee, S. Y., & Baek, J. H. (2014). Development of oriental thought and Korean youth death education program. *Keimyung Korean Studies Journal*, 56, 239-269.
- Jung, J. G., Lee, S. Y., Lee, H. J., & Baek, J. H. (2015). The development of death education model for Korean youth: Centered on the comparison with death education model for Japanese youth. *Journal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18(2), 325-356.
- Jung, J. G., Lee, S. Y., Lee, H. J., Baek, J. H., & Lee, Y. T. (2013). The limitation of Deutsch death education at the perspective of oriental thoughts. *Journal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28, 171-197.
- Kang, S. B (2016). *A study on the contents of literature educational based on meaning of the death in Korean classical nove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Deoksik (2015.09.30). *100세시대 `행복수명`은 60대 [In the 100s, 'happiness life' is in their 60s]*. *Maeil Business Newspaper*. Retrieved from http://news.mk.co.kr/news_Read.php?sc=30000001&year=2015&no=9334 71
- Kim Hyeongsik (2018.04.16). *CMB 집중토론 끊임없는 자살 문제 희망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CMB concentration debate, constant suicide problem! Let's create a hopeful Korea.]*. *CMB 뉴스*. Retrieved from <http://www.cmbdj.co.kr/ab-991-12340>
- Kim Ijin (2018. 08. 31). *웰다잉을 준비하는 방법 [How to prepare for well-dying]*. *EBS NEWS*. Retrieved from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 /10944850/H>
- Kim Minjae (2018.08.27). *한국 '고령사회' 첫 진입...생산인구도 사상 첫 감소 [Korea's first entry into the 'aged society'...First-ever decline in production population]*. *노컷뉴스*. Retrieved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138262>
- Kim S. H., & Byun, S. W. (2014). Analysis of the trends of research education on death. *Journal of Digital*

- Convergence*, 12(12), 469-475.
- Kim Sora, (2018.6.21). *전 연령대 자살률 줄지만 10대만 증가...1년새 16.5% 상승* [Decrease the overall age group suicide rate, but only the number of teenagers has a 16.5% increase in a year]. Chosunbiz. Retrieved from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6/2017092602113.html#csidx7dac9c628327c629870108e9d08095d
- Kim, D. H. (2010). Death education through Korean language texts : Seeking the teaching methods by the analysis of death motif. *The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46, 1-30.
- Kim, H. C. (2006). *(The) attitude of death among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E. (2011). *Study on education about death in secondary Morality·Ethics curricul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 Kim, J. H. (2010). *A study on educational values of the death and its teaching-learning methods in middle school Korean text book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H. (2002). An educational-philosophical meaning of death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5, 205-223.
- Kim, S. K. (2009). *A study on the necessity of death education in Moral Education of middle school curricul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Buk, Korea.
- Kim, Y. H. (2010). Philosophical meaning of death and necessity of education on death. *Studies on Life and Culture*, 18, 43-75.
- Kim, Y. R. (2018). A study on the age of 100 and the need for death reflection. *간지인문학*, 21, 171-196.
- Ku, I. H. (2012). Philosophical understanding of death.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6(1), 49-67.
- Kweon, M. Y. (2017). Teenage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through death education: Focusing on nietzsche's views on life and death.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44, 249-275.
- Laster, J. F. (1982). A practical action teaching model. *Journal of Home Economics*, 74(3), 41-44.
- Lee J. (2017. 07. 23). *홀로 맞는 죽음 5년 새 78% 증가...예방시스템 전무* [Alone deaths increased by 78% over five years ... No prevention system at all]. 연합뉴스 Retrieved from <http://www.gomtv.com/view.go m?contentsid=14833115&auto=1>.
- Lee S. (2015.05.30). *'유언장 쓰고 수의 입고 웰다잉 준비하는 사람들* [Those who are preparing for well-being through 'writing a will and putting on winding sheet']. YTN. Retrieved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688425>
- Lee, D. Y. (2017). *Humanity educational implications of perspective on existentialism death*. Unpublished docto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Lee, D. Y., & Kang, S. B. (2016). The study of necessity of death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29(1), 113-137.
- Lee, H. S. (2016). Meaning of death and value of education in high school Art textbooks.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4(2), 105-130.
- Lee, J. Y. (2004). The youths' perception of death and the religiou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9, 39-56.
- Lee, L. J. (2016).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death education and urgent problem.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Gerontology*, 2(1), 69-88.
- Leviton, D. (1977). The scope of death education. *Death Education*, 1, 41-56.
- Min, D. L., & Cho, E. H. (2017). Concept analysis of good death in the Korean community. *Journal of Korean*

- Gerontological Nursing*, 19, 28-38.
- Ministry of Education (2015). *2015 curriculum revision*.
- Moon, Y. H. (2007). A study of the juvenile delinquent and death preparation educa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10, 185-203.
- National Health Insurance Health Angel (2018. 9. 10.). 아버지 의 마지막 선택[Father's last choice]. Retrieved from <http://www.youtube.com/watch?v=uUZuztefPQ8&feature=youtu.be>
- Noh Dohyeon (2018.09.24.). 죽음, 맞이하시겠습니까? 맞으시겠습니까? [Death, will you prepare or be confronted?].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c=201809240600005&code=210100
- Noh, H. Y., Cho, J. S., & Chae, J. H. (2017).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pre-parenthood education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based on Home Economics subjec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9(4), 161-193.
- Park Seungcheol (2013.12.19.).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How long will I live in the future?]. *프리미엄조선*. Retrieved from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13/2013101301030.html
- Park Yongha (2018.04.24.). 한국 행복지수 낮은 까닭? 사회여건 기여도 적은 탓 [Why is the happiness index of Korea low? Due to the low social contribution]. *경제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c=201804241847001&code=920100
- Park, H. J. (2015). *A study on development of youth death education program and it's effect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l University, Anyang, Korea.
- Park, S. N. (2011). The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death education for children.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9(4), 53-68.
- Ulrich, B. (2010). *글로벌 위험 사회 [World risk society]*. Seoul: Ghil.
- Warren, W. G. (1989). *Death education and research: Critical perspectives*. New York: The Haworth Press.
- Wi Aram (2018.06.22). 정신질환으로 분류된 청소년 게임 중독...증상과 나쁜 영향은? [Youth game addiction classified as mental illness...Symptoms and bad effects?]. *FAMTimes*. Retrieved from <http://famtimes.co.kr/news/view/50789>
- Yang Seonhui (2018.02.04). 치료 '당하다' 고독사 ... 죽음 알아야 존엄 지킨다 [Dying alone while being treated on a hospital bed...Knowing the Death will protect your dignity]. *중앙선데이*. Retrieved from <http://news.joins.com/article/22342957>
- Yang, I. G. (2017). *Death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for you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Yoo, M. A. (2012). *A study on the methods of death: Understanding education in the elementary moral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Yoon, M. O. (2009). The effects of a death preparing education program on death anxiety, spiritual well-being, and meaning of life in adul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4), 513-521.
- Yoon, S. I. (2009). *The meaning of death and pedagogical implication in Heidegger's ontolog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국문요약>

죽음준비교육은 단순히 미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행복하고 의미있는 삶을 위한 교육이다. 죽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직면하는 항구적 문제이며 개인의 가치관과 자신이 속한 사회에 따른 맥락적인 실천적 문제라는 점에서 가정 교과와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교 가정교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문제 중심의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ADDE모형에 따라서 개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나와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프로그램은 12가지의 실천적 문제와 중·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죽음준비교육 교수·학습 과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가정과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가정과 수업에서 청소년이 죽음을 자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가치 있는 죽음을 위한 의미 있는 일상의 삶을 실천하게 하는 교육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후속 연구로 가정교과에서의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도 조사와 현장에서 교수·학습 과정안을 실행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 논문접수일자: 2019년 1월 8일, 논문심사일자: 2019년 1월 9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2월 2일